

# 英祖代 通信使와 李德懋의 日本 研究

鄭章植\*

## 目次

1. 서론
2. 1748년 통신사의 일본 체험
3. 1764년 통신사의 일본 체험
4. 이덕무의 일본 연구
5. 결론

## 1. 서론

18세기에 日本研究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과 일본이 어떠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조선의 交隣外交는 通信使로 대표되었고, 使行錄이 일본 인식을 대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使行錄은 朝廷에 제출하는 復命書이었으므로, 사신의 속내를 잘 알 수 없으며, 사행이 定例化 되어감에 따라 기록도 定型化 되어, 사신은 前行의 軌를 벗어나지 않게 기록하려 하였다. 그러므로 使行의 裏面과 實體를 파악하려면, 사행 이면에 가려진 감정과 반응을 살펴야 할 것이다.

英祖代에 파견된 두 번의 사행(1748년:英祖24 / 1764년:英祖40)은 양국관계에 특별한 懸案이 없었던 儀禮의인 통신사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燕行使를 통하여 淸의 문물에 자극 받았고, 그간의 通信使를 통하여 일본의 繁盛이 알려져서, 일본을 새롭게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다.

특히 英祖代는 兩亂으로 와해되었던 조선사회가 정체성을 확립하던 시대였으며, 燕行使와 通信使를 통하여 蓄積된 해외 정보와 함께, 實學이라는 새로운 사상적 흐름이 등장하여, 일부 實學者들은 日本에 대한 시각을 바꾸었고, 통신사도 前과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었다. 李德懋(1741-1793)가 활동하였던 英祖代에 파견된 두 번의 통신사 사행록은 당시의 대표적인 일본 인식이었고, 또한 日本研究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本稿에서는 英祖代 두 번의 사행이 어떤 시각으로 일본을 관찰하였고, 또 前行과 어떻게 달랐는지를 살펴보고, 이덕무의 日本研究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이덕무의 日本研究가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1748년 통신사의 일본 체험

\* 청주대학교 부교수 일어일문학과(일본학)

## 1) 使行 준비

1719년 通信使 製述官 申維翰이 吉宗 將軍을 ‘名君’이라 평하였고, 三使도 吉宗 將軍을 모처럼 좋게 보고하였다.<sup>1)</sup> 이렇게 使臣에게 신뢰를 받았던 吉宗 將軍이 退休한다는 소식이 1745년(英祖 21) 11월말에 전해졌으나, 將軍이 健在한데 아들이 襲職하는 異例的인 讓位는 물론이며, 襲職하는 將軍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 朝廷에서는 아무런 의심도 없었다. 이러한 신뢰는 그간의 使行으로, 幕府의 성격을 잘 파악하였고, 또 淸과 외교 관계 定立으로 南邊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對外問題가 안정되자, 英祖는 국내 문제로 눈을 돌려 國家紀綱을 바로 잡으며, 黨爭 폐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였다. 또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였으나, 破폐된 경제는 쉽게 일어나지 않았고, 民亂과 전염병이 발생하여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國政이 어려웠지만, 前例에 따른 通信使 파견에 異見은 없었으므로, 1747년(英祖 23) 3월 21일 通信使 正使에 洪啓禧, 副使에 南泰耆, 從事官에 曹命采를 임명하였다. 이들 三使는 모두 燕行使 경험에 있었기에, 通信使에 적임자로 생각되었던 것이다.

朝政은 사치를 금하며, 중국에서 비단 綾紗를 사오지 못하게 하였으나 通信使 禮單으로 綾紗를 보낸 前例가 있었으므로, 交隣외교에 예단으로 쓸 綾紗만은 예외로 輸入을 허락하지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러면 도리어 일본의 웃음을 살 수 있다고 英祖는 거절하였다.<sup>2)</sup> 이제 淸과 관계 정립으로 北邊이 안정되자, 조선은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보며, 南邊의 안보를 빌미로 삼는 “倭人の 事端”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使行 節目講定을 위하여 對馬島를 다녀온 渡海譯官 玄泰翼도, “우리 임금이 儉德을 숭상하여 綾紗를 국내에서 쓰지 않으므로 交隣에도 쓸 수 없다고 하였더니, 島主가 처음에는 곤란해 하였으나, 마침내 감동하여 허락하였다”고 보고하여, 어려운 예단 문제도 하나는 해결되었다.<sup>3)</sup>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禮單 人蔘이 부족하였다. 예단으로 가져가야 할 인삼이 260斤이나 되는데, 당장 140여斤이 부족하였다. 戶曹判書는, 140여斤을 마련하려면 銀子 3萬이 있어야 하나, 그만큼 銀子도 없는데다 인삼 產地인 江界에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銀보다 곡식을 원한다고 하여, 英祖는 이에 필요한 쌀 7,000석을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sup>4)</sup>

이러한 통신사 파견 준비 과정을 볼 때, 통신사 파견은 朝廷에 큰 경제적 부담이었다. 北邊이 불안하였던 상황에서는, 對馬島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南邊도 우려할 일이 없어졌으므로, 굳이 통신사를 보내지 않아도 될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간의 前例와 幕府에 대한 義理 때문에 조선은 마지못해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이었다. 또 통신사 파견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首譯 玄泰翼과 東萊府使 金尙重가 국가 體面을 손상시켰다고 定罪한 것을 보면, 日本에 대한 朝廷의 태도가 이전보다 강경하였음을 알 수 있다. 朝廷의 강경한 태도는, 대마도가 交隣外交에 敬과 誠을 보이지 않는데 대한 과민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 2) 使行

---

1) 숙종실록 46년 1월 24일 - 通信正使 洪致中이 일본에서 돌아와서 世子에게 보고하다.  
2) 영조실록 22년 12월 15일 - 다음 해 4월 9일에 통신사 예단으로 綾紗를 가져가는 문제가 다시 거론되었을 때, 大臣들은 물론이고 正使 洪啓禧도 “왜인은 信義로 책망할 수 없으니” 約條대로 綾紗를 중국에서 무역하여 가져갈 것을 주장하였으나, 英祖는 반대하였다.  
3) 영조실록 23년 8월 11일  
4) 영조실록 23년 1월 11일

출발을 앞둔 11월 17일 英祖는 통신사 軍官을 친히 불러, 일본의 事情. 도로의 遠近. 山川의 險易. 武藝의 長短. 人心. 習俗을 잘 엿보고 오라 일렀다. 당시 國際情勢나 對日關係를 볼 때 이것은 의례적인 작별인사이었지만, 아직도 일본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1월 28일 三使는 서울을 떠났다. 이번에는 예단도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사신이 내려가는 동안 각처에서 배푸는 잔치도 忠州. 安東. 慶州에서는 열지 말도록 하였다. 從事官 曹命采의 『奉使日本時間見錄』에는 東萊까지의 過程을 생략한 것을 보면, 이제 일본으로 가는 사신이 感懷를 구구하게 적지 않아도 될 만큼, 使行에 위험이 있거나 남다른 異國 체험이 아닐 정도로 사행 내용과 體驗이 많이 알려져 있었다.

사행은 1748년 2월 16일 多大浦를 떠나 佐須浦[佐須奈]로 향했으나 바람으로 악포(鰐浦)로 들어갔다. 그런데 악포에 머물던 2월 21일 새벽 1시경, 副使 騎船에 화재가 났다. 사행록은 화재 원인에 대하여 자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對馬島는 “(對馬島가)祝儀로 보낸 술을 마시고 下官들이 취했을 때, 촛불이 배안의 도롱이로 옮겨 붙어서 副船 騎船이 燒失되었다”고 하였다.<sup>5)</sup> 위험한 바다를 건너 무사히 대마도에 安着하였고, 대마도 사람들이 좋은 술과 안주를 보냈으니, ‘下官(뱃사람)들은 모처럼 긴장을 풀고 술에 滿醉하여 촛불에 주의하지 않아, 짚이나 갈대로 만든 도롱이에 불이 붙어, 거센 바람을 타고 배로 쉽게 옮겨 붙었으리라 생각된다. 귀국 후 (영조 24년. 윤 7월 30일), “正使가 使行을 잘 통솔하지 못하여, 武官들이 멋대로 행동하였고, ‘副船 火災를 고의로 일으켜 조정을 속였다’는 사람도 있다”고 비판한 것을 보면, 수행원들이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대마도는 사행 隨行이 섬의 死活이 걸린 문제였으므로, 섬의 수행원이 실수하거나 태만하면 무서운 형벌을 내렸으나, 조선의 수행원은 대접을 받는 입장에다, 실수나 태만이 있어도 笞杖이 고작이라, 兩國 수행원의 태도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화재 사건도 누구의 잘못인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으나, 사행의 紀綱 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失火로 副使 일행의 需用品과 어렵게 마련한 人蔘과 무명, 赴蓉香 등이 타버렸고 死亡 3명에 火傷이 10여 명에 이르는 불상사였다. 將軍襲職祝賀 使行에 사망자가 나온 不吉한 사고였으므로, 대마도는 사건을 막부에 알리지 말자고 하였으나, 三使가 거절하여 할 수 없이 막부에 보고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불에 탄 예단 인삼이었다. 副船에서 소실된 인삼 72근을 보충하려고 여기저기서 인삼을 찾아도 47근이나 부족하여, 결국 失火 사건은 3월 1일 조정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자 조정은 예단 인삼 70근의 조달이 걱정이었다. 戶曹의 在庫도 적었고, 아직 인삼 철이 아니므로 기다려서 보내지는 의견과, 부득이한 사건이니 대신 다른 물건을 보내지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단 인삼은 ‘關白’에게 증여하는 예물이라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여러 窮餘之策이 나왔으나, 조정에서 인삼 70근을 못 구하면 이웃나라에 흉이 된다고 하여, 결국 수소문하여 구해 보내기로 하였다. 그런데 인삼 時價가 朝廷의 收買價로 銀子 萬五千에 상당하는 액수여서, 그만한 銀子를 마련해야 하는 朝廷의 고민도 컸음을 알 수 있다.<sup>6)</sup>

화재 후 副使는 왜선을 빌려서 짐을 싣고, 초라한 모습으로 대마도 府中에 들어갔다. 副船의 失火라고 하지만, 막부가 島主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므로, 島主(宗義如)의 마음도 편치 않았던 모양이다.

5) 西村まり子(2000).『日本見聞錄にみる朝鮮通信使』.明石書店. p.212

6) 영조실록 23년 1월 11일

使行은 2월 24일 대마도 府中에 들어갔다. 보통 島主는 도착 사흘 만에 사신을 보러 오는데 이번에는 執政의 예단과 사신이 江戸에 보내는 서계 文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핑계로 相見禮를 미루고 있었다. 府中에 도착한지 11일이 되는 3월 5일에야 相見禮가 이루어졌고, 7일에는 前例에 따라 馬上才가 있었다. 16일까지 府中에 머무르는 동안 대마도에서 詩文唱和 요구가 있었으나 사신들은 使命을 마치지 못하였고 또 失火로 待罪하는 중인데, 어찌 한가히 詩를 읊겠느냐며, 歸途를 기약하고 사양하였다.

4월 11일 사행은 廣島藩의 蒲刈에 들어갔다. 1636년 사행록에는, 支供으로 살은 꿩 100마리를 보냈다고 기록되었다. 꿩 한 마리에 3兩이었으며, 다른 供帳 비용도 3,000兩이 들었다고 하며, 해마다 통신사가 온다면 일본의 재물이 탕진될 것이라 걱정하였다고 한다. 이곳의 접대는 유명하였고, 화장실도 綾花紙로 도배하고 다타미[畳]를 깔았는데 포장으로 드리운 신식 비단은 “阿蘭陀[和蘭]에서 수입하였다고 한다. 접대를 맡은 廣島藩은 60여 명의 사무라이를 파견하였는데, 그중에 朝鮮語 通詞가 10명 있었다고 하니, 廣島藩은 통신사 접대를 위하여 조선어 通詞까지 養成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7)</sup>

마침 夏節期에 접어들어서 꿩고기가 맛이 없을 때라, 蒲刈에서는 꿩은 支供으로 보내지 않았다.<sup>8)</sup> 막부의 監視를 받으며, 접대에 막대한 경비를 지출해야 하고, 또 실수 없이 접대해야 하였으니, 접대를 맡은 各藩은 戰戰兢兢하였겠지만, 그러한 접대를 받는 사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마음을 쓰고 人工을 쓰는 것이 거의 걸을 꾸미는 것이 많다”(4월 11일)고 달갑지 않게 여겼다. 각처에서는 山海珍味를 내놓았지만, 사신이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더 많았다. 蒲刈가 자랑하던 “七五三の膳”은 당시 最高로 화려한 상차림이었지만, 儀式的인 음식이라 使臣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岡崎는 將軍의 使者가 마중 나오는 곳이라 접대에 신경을 써서, 특별히 꿩을 支供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것은 먹기에도 맛이 없어 거의 ‘닭갈비[鷄肋]’와 한가지였다”고 실토했다. 사신을 대접하려고 비싼 꿩을 보냈는데, 5월에 꿩고기를 먹으려니 맛은 없었고, 버리려니 미안하여 “닭갈비[鷄肋]”에 비유하였다.

4월 15일에는 ‘韮浦[韮の浦]에 들어갔다. 先行 기록에는, “바다와 산의 絶景이 지금까지 오던 중에서 제일”(1682년 金指南『東槎日錄』7월 19일)이라 칭찬하였으므로, 福禪寺의 경치를 감상하며 한 수 읊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사신들의 이런 기대를 몰랐던 代官은, 福禪寺에 火災가 나면 鎮火가 어렵고, 進入路가 좁아서 출입이 불편하며, 福禪寺 바로 밑에서 들리는 파도 소리가 安眠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사신을 편안하게 모시려고 阿彌陀寺로 숙소를 정하였다. 그러면서 福禪寺가 불에 타서 숙소를 바꾸었다고 둘러대었다. 그런데 일행 중에 이곳을 아는 사람이 福禪寺에 가 보았더니 절은 황폐하였으나 그대로 있었다. 이 말을 들은 사신은 “왜인의 교묘하게 속이어 참되지 않음이 흔히 이러하니, 매우 통탄스럽다”고 탄식하였다. 평소에도 ‘倭人’이라면 不信과 嫌惡感이 있었는데, 이렇게 눈에 뻘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으나, 사신을 잘 대접하려던 善意의 거짓말이 不信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사신은 歸路(7월 10일)에도 ‘韮浦[韮の浦]에 寄港하였으나, 福禪寺가 낡아서 숙소로 쓸 수 없어서 절에 올라가 구경만 하고 밤늦게 배로 돌아가 잤다. 이곳에서는 歸路에 사신이 福禪寺에 들것을 예상하고, 1711년의 從事官 李邦彦이 쓴 “日東第一形勝”이란 편액을 문 위에 걸어두었고,

7) 『廣島藩.朝鮮通信使來聘記』. 吳市, 安藝郡下蒲刈町. p.29

8) 蒲刈는 살아 있는 꿩을 支供으로 보냈다고 소문이 났지만, 실제로 꿩을 보낸 것은 1636년(11월 4일)과 1719년(8월 27일) 두 번뿐이었다. 그런데 두 번 모두 꿩고기가 맛있는 계절이었다.

1719년에 三使가 지은 七言律詩를 비단 족자로 만들어 벽에 걸어 놓으며, 갈 때의 잘못을 사과 하였으므로, 正使의 차남 洪景海는 그곳을 “對潮樓”라 命名하고 懸판을 써주었다.<sup>9)</sup> 이러한 사신의 要望을 알게 된 代官은, 다음 사행(1764년)때는 福禪寺를 수리하여 숙소로 사용하였다.

‘靛浦[靛の浦]는 ‘赤間關’보다 더 변화한 듯하였고, “그 풍속이 조금 거칠어서 詩나 글씨를 구걸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나 사람들의 행동은 또한 변변하다(4월 16일)”고 하였다. 지나 온 여러 곳에서는 일행에게 글씨를 구하는 사람들이 귀찮을 정도로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글’[漢文]도 모르는 ‘격군’[格軍: 뱃사공]한테까지 글씨를 구하여, ‘諺文’으로 써주어도 귀하게 받아갔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을 보니 사정이 다른 것 같았다. 이곳 사람들이 통신사에게 詩나 글씨를 구걸하지 않는 것은 文字에 어두운 탓이었으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筆跡을 구걸하지 않는 태도가 당당하여 輕薄하게 보이지 않았다.

당시 日本 文士들이 通信使에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조선이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문화 선진국이라는 인식 때문이었으나, 庶民들 사이에는 “조선 사람의 글씨를 얻어 두면 일마다 반드시 성취 한다”는 俗說이 있어서, 그렇게 보배를 얻으려는 듯이 모여든다는 것이다(4월 9일<sup>10)</sup> 이는 一理가 없는 말이었지만, 庶民들 사이에 이러한 俗說이 퍼진 것을 보면, 당시 庶民들도 朝鮮을 문화 선진국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얻기 힘든 통신사 필적이 미신적인 俗說로 바뀌어 符籙처럼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사행은 5월 21일 江戶에 짐을 풀고, 國書傳命은 27일에 하고, 13일 歸途에 오르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副船 失火로 消失된 예단을 조정에서 다시 보냈다는데 도착하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그래서 國書傳命을 延期하려고 島主와 상의하였더니, 날짜는 조금도 물릴 수 없으니, 예단 인삼은 빈 궤로 전했다가 나중에 예단이 오면 맞추어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신이 눈속임을 쓸 수는 없다고, 島主에게 다시 날짜를 연기해보라고 24일에 書面으로 요청하였다. 25일이 되어도 예단은 오지 않았고 島主의 회답도 없어서, 가슴을 졸이며 더운 날씨에 모기장 속에서 시름을 달랬다. 26일에서야 島主가 口頭로 전하기를, 국서전달은 6월 1일로 연기하였고, ‘執政’[老中]이 ‘잘 달리는 자’[飛脚]를 보내어 예단을 재촉하였다고 대마도의 回答은 문서로 하게 되었는데 대마도가 文書를 작성하려면 日本語를 眞文役이 漢文으로 번역하고, 다시 長老가 확인과 監視를 겸하여 淸書하는 순서를 밟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對馬島도 급한 연락은 우선 口頭로 전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傳命式을 연기한다는 回答書는 28일에 전해졌다. 26일 밤 8시가 넘어서, 다시 보낸 예단이 겨우 도착하였다. 조정에서 논의할 때는 인삼 70근을 補充해주시기로 하였는데, 江戶에서 달아보니 51근이었고, 副使 官服과 禮曹의 書翰 1통이 도착하여, 아쉬운 데로 예단을 갖추게 되었다.

형식적인 傳命式을 끝으로 사행의 大任은 끝났으나, 사신이 본 家重 將軍의 인상은 “마치 타다 남은 고목 그루터기와도 같았다”고 酷評하였으니, 이것은 吉宗 將軍에 대한 好評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막부가 보낸 回禮單子의 도장이었다. ‘太大君’[吉宗]의 도장은 “源”자 하나로 舊例이나, 家重 將軍은 “源表正”, ‘若君’[家治]은 “源寬裕”로 舊例와 달랐다. 거기다 ‘若君’은 성명도 쓰지 않고 도장만 찍어서 國王과 對等한 예를 취하고 있었다. 사신은 이것을 문제 삼아 대마도를 통하여 修正을 요구하였으나, 막부는 “壬戌年”(1682. 天和2)의 前例를 따랐다는 대답이었

9) 이 때 쓴 懸판과 五言律詩 9首는 木版으로 福禪寺에 걸려있으며, 正使의 시는 다음과 같다.(福禪寺樓次杜工部韻 “前輩乘槎至 人人說此樓, 海低沙所極 老樹與同浮, 孤月留吾客 千燈繫群舟, 鐘鳴猶未起 河漢已西流” 戊辰初秋 朝鮮國通信正使 澹窩)

10) “朝鮮人の 필적을 얻어서 간직해 두면 많은 福利가 있다.”(1764년 趙曦『海槎日記』 1월 11일)

다. 너무나 엉뚱한 대답에 사신은 예단 수령을 거부하고 버티다가, 將軍의 印章에 일정한 규례가 없고 전례가 이와 같음을 분명히 알았으니, 더 이상 버티어도 勝算이 없을 것 같아서 사신은 回禮物件을 받았다.(6월9일) 그러나 『宗家記錄』에는 11일까지 修正 교섭이 계속 되었다고 하였다.<sup>11)</sup> 사신이 이번에도 前例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한 것은, 일본과 對等하게 ‘通信 하는 것이 交隣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 前例에 없는 答書를 받아간 사신이 책임을 추궁 당한 先例가 있었고, 이번에는 失火事故도 있었으므로, 그러한 不祥事를 挽回하기 위해서라도, 修正을 강하게 요구하였을 것이다.

### 3) 日本 觀察

당시 朝鮮에는 ‘尊明排淸’을 大義名分으로 하는 ‘北伐論’이 밑바닥에 남아 있었고 淸에 가는 燕行使들도 대개 ‘小中華主義’로 무장된 文士들이었다. 燕行使들은 北京에서 淸의 문화적인 능력을 보았지만, ‘오랑캐’에 대한 反感과 蔑視感을 쉽게 바꿀 수는 없었다. 1644년에 明이 멸망하자, 조선은 겉으로는 淸에 복종하는 듯하였으나, 속으로는 강박관념 같은 ‘小中華主義’와 ‘尊明排淸’ 사상이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이번 使行의 三使는 燕行 경험이 있었으므로, 일본의 번성함에 놀라움이 덜하였을 것이다.<sup>12)</sup>

윤7월 30일 英祖에게 귀국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正使는 “일본의 여염이 성대함은 중국보다 나았고, 모두 軍法으로 통치하여 질서 정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막부는 통신사를 초빙해 놓고는 “조선에서 朝貢을 바치러 왔다”고 선전하며 조선을 욕보였으나, 先行들이 “매양 일이 생길까 두려워서 그대로 두고 못들은 체하기 일쑤였다”며, 막부가 통신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며 통신사 파견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사신의 보고는, 先行의 태도를 비난하며 자신들의 떳떳한 태도를 강조하고, 아울러 ‘小中華主義’에 입각하여 ‘오랑캐’에 대한 통신사 파견을 중지해야 된다는 중요한 문제 제기였지만, 조정은 先例를 중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통신사가 국가 체면을 손상하지 않도록 위엄을 보이는 일과 뇌물을 받지 않는 소극적인 대책만 논하였다. 그러면서 먼저, 正使가 使行 紀綱을 바로잡지 못하여 수행한 武官들이 교만 방자하였고, 사행이 부산에 머무른 4개월의 支供으로 주변 고을들이 피폐하였다는, 紀律이 문란하여 민폐가 극심하였던 점과, 副船이 燒失된 책임을 正使의 감독 소홀로 돌렸다. 막부가 통신사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나, 조선이 南邊 안보를 위하여 통신사를 파견하는 것은 모두 內政의 延長으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再論할 필요가 없었다.

從事官의 『奉使日本時間見錄』은 日程과 일본의 인상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奉使日本時見聞錄』은 교린외교에서 重視해야 할 「倭京」, 「江戶」, 「對馬島」를 「聞見總錄」에서 略述하였다. 「倭京」에서는 京都의 地勢, 天皇, 朝廷과 幕府 관계를 논하였고, 특히 大佛寺 宴會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天皇에 대해서 先行이 관심을 많이 보였던 것처럼, 여기서도 先行 기록을 바탕으로, 天皇은 關白에게 정권을 빼앗긴 ‘虛位’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天皇觀이 18세기 實學者들에게 알려져, 李瀾, 安鼎福, 丁若鏞 등이 對日本 외교 재검토를 논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였다.

「江戶」에서도 역시 地勢과 地形을 말하고 幕府의 정치를 논하였다. 江戶는 견고하고 부유하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으나, 淫風에 물들어 儒風으로 教化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여기서도 先行의 영향으로, 前代의 吉宗 將軍을 높게 평가하며, 막부의 諸侯[大名] 감독과 정치, 천황과의 관계, 세

11) 西村まり子 · 『日本見聞錄にみる朝鮮通信使』 · 明石書店 · p.352

12) 李元植(1991). 『朝鮮通信使』. 민음사. p.86

습제 등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秀吉이 왜구를 금압하여 조선이 노략질 당하던 근심이 없어졌다는 意外의 소문을 소개하였는데, 이것은 秀吉에 대한 怪異한 평가에 놀랐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막부와 ‘大名’들의 財政이 어려운 것까지는 感知하지 못하였다.

「對馬島」에서는 섬의 경제를 중심으로 교린외교에서 차지하는 역할을 소개하였다. 조선에서 주는 경제적인 이득과 통신사 護行이 對馬島의 生命線이므로, 島主는 통신사를 핑계로 간사한 짓을 하며 豪奢를 누린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것도 先行과 다름없다. 대마도는 인삼무역 독점으로 큰 이득을 얻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밀무역과 중국 상인을 통해 들어가는 인삼이 늘어나 대마도의 이득이 없어져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였다. 전에는 대마도 사람들이 궁색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窮狀을 드러내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이들이 더 교활한 천성을 보여 東萊府의 담당자들을 위협할 터인데,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뒷날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이것을 보면 당시 대마도에 대한 깊은 不信과 경계심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겠다.

「總論」도 先行과 같이 地理, 國勢, 兵制, 風俗, 刑政, 物産, 植生, 國民, 人性, 文化 등을 百科事典式으로 열거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제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소개하였는데 兵書는 새로운 것이 없으나 각종 砲와 鳥銃이 정예하고, 兵制의 규율이 엄하여 兵士가 강하다고 하였다. 역시 「總論」에도 오해나 訛傳이 많아서, “일본인은 人品이 경솔하고 악독하다, 여자는 天性이 음탕하다, 醫員이 머리를 깎는 것은 병든 집에서 부를 적에 빨리 가려는 것이다” 등은 先行 기록이나 譯官의 말을 참고한 듯하나, 역시 난센스 같은 이야기다. 그러나 일본의 長點은, “紀律이 있고, 온갖 일이 모두 정연하여 法度가 있으며, 기름진 들판이 천리에 뻗쳐 뽕나무와 삼대가 그늘을 이루고, 여자는 한 해에 누에를 세 번 치고, 남자는 100 이량의 밭을 경작한다. 그리고 산과 바다의 광물과 수산물을 채취하여 金銀이 흙더미처럼 쌓였으니, 살기 좋은 고장이라 할 만하다”며 일본의 자연환경과 질서와 國富를 부러워하였다. 그러면서도 “땅은 참으로 아름다우나 蠻夷임에는 어찌하겠는가?”하며, 일본의 長點도 “蠻夷”의 땅이므로 어찌할 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 3. 1764년 통신사의 일본 체험

#### 1) 使行 준비

1760년(英祖36, 寶歷10) 4월, 막부의 9대 將軍 家重(1711-1761)이 은퇴를 선언하고, 家重의 장남 家治(1737-1786)가 9월 2일 10代 장군으로 취임하였다. 막부는 1761년 1월 대마도에 명하여 조선의 축하사절을 초빙하도록 하여, 대마도는 10월에 禮曹로 장군 취임을 알려왔다. ‘新將軍 취임 소식을 들은 조선은 통신사 파견이 재정에 부담이 되었으나, 전례에 따라 파견을 결정하고, 1762년 8월에 三使를 임명하였다.

조정엔 正使에 徐命膺, 副使에 嚴璘, 從事官에 李得培를 임명하였으나 1763년 7월에 正使로 임명되었던 吏曹參議 徐命膺이 함경도 鍾城으로 流配 되는 바람에 正使에 鄭尙淳, 副使에 李仁培, 從事官에 洪樂仁을 任命하였다. 그런데 7월 13일에 正使 鄭尙淳이 老母가 있다는 이유로 遠行을 기피하며 命을 받들지 않았다. 그러자 조정은 命을 받은 사람이 規避하는데 이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勉勵 시킬 수 없다하여, 鄭尙淳을 金海로 流配 보내고, 從事官 洪樂仁이 趙曠과 親嫌이 있다하여, 최종적으로 正使를 趙曠으로 從事官을 金相翬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통신사 最終 人選이 출발을 20여 일 앞둔 時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趙曠은 이러한

상황을 “자못 戰陣에 임하여 장수를 비꾼 것과 같았다(臨戰易將)”고 비유하며, 20여 일 동안에 행장을 꾸리기도 바빠서, 員役 人選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8월 3일)<sup>13)</sup>

英祖는 사신을 떠나보내며 친히 “二陵松栢”이란 글귀를 외우며, “왜란 때 ‘二陵[宣陵과 靖陵]이 盜掘당한 굴욕을 잊지 말고, 君命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命하니, 趙曦은 “통분함을 참고 원통함을 삼키며 말래야 말 수 없다.(忍痛含冤 迫不得已)”고 임금 앞에 아뢰며, 오로지 “忠과 信만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이라는 聖賢의 훈계”로 使行 意志를 다짐하였다.(8월 3일)

朝廷에서 趙曦(1719-1777)을 正使로 발탁한 것은, 對日本 외교를 主管하는 東萊府使(1757-1758년)를 거쳤고, 慶尙道 觀察使(1760년, 영조36)로 있으면서 “영남 半道 재산의 많은 양이 倭에게 주는 것”을 뼈아프게 체험한 경력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日本通을 正使에 적임자라고 판단하였다.

趙曦은 출발에 앞서, 일본에서 충돌이나 말썽을 방지하고 국가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前行의 ‘禁制條項’을 참고하여, “員役에게 효유한 글”(曉諭員役文)과, “禁制條”, “約束條”을 만들어, 아래로는 모든 奴卒들도 알도록 諺文으로도 써서 布告하였다.

“曉諭員役文”에서는 員役들의 명령 체제를 분명히 하고, 館所의 기물을 훼손하지 말 것과, 불조심·예절·日供에 대한 폐단을 없애고, 물품은 후하게 주고 박하게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先行 사행록과 오랜 외교 현장에서 터득한 ‘日本通’의 經綸이었다.

“禁制條”는 潛商, 姦通, 비밀 누설, 예절 등에 대한 禁制로 이러한 사항은 지금까지 누누이 이야기 되었으나, 역관들이나 奴卒들이 지키지 않아서 늘 말썽이었다. 그래서 질서나 예절을 어긴 자는 곤장으로 다스리고, 潛商이나 姦通 등의 國禁을 범한 자는 효시(梟示)한다고 布告하였다. 우리 員役들은 대마도에서 “上國”이라는 優越感和 여행의 해방감으로 무질서한 행동을 많이 보였으며, 잘못을 저질러도 겨우 곤장 정도의 형벌이었으니, 무질서는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約束條”는 사행 내부의 規律로, 行中の 예절을 강조한 것이었다. “曉諭員役文”, “禁制條”, “約束條” 중에서 특히 “질서와 예절”이 강조된 것을 보면, 사행 중에 “下官”들이 질서와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인솔하는 사신들이 고심한 흔적이 사행록 곳곳에 보인다.<sup>14)</sup>

趙曦의 『海槎日記』末尾에, 員役 477명 중에 格軍(228명)과 沙工(28명)이 256명이었다고 한다. 員役의 半數가 넘는 숫자가 소위 ‘賤民’으로 치는 ‘뺏사람’이었고, 이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으며, 또 각처에서 모아온 사람들이라 조직적으로 통솔하는데 문제가 많았을 것이다. 또 刀尺(6명), 奴子(46명), 樂工(18명), 吹手(18명), 羅將(18명) 등도 賤待 받던 사람들이라, 이들의 보이지 않는 反撥도 있었을 것이므로, 사신이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軍官의 힘을 빌려 통솔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바람을 기다리며 부산에 머무는 동안(8월 20일-10월 5일)에 “일행의 支供을 嶺南 71개 고을에서 담당하였는데, 하루에 드는 돈이 백여 金이 넘었고, 그렇게 40-50일 동안 공급되는 일이 너무도 過濫하여”, 趙曦은 東萊府에 공문을 보내어 支供을 3분의 2로 줄이고, 소모의 폐단을 금하도록 하였으나, 폐단이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으니,(9월 21일) 趙曦이 볼 때 통신사는 경제적으로 民弊가 많은 사행이었고, “통분함을 참고 원통함을 삼키며, 말래야 말 수 없는(忍痛含冤 迫不得已)” 행사이었다.

13) ( )안의 날짜는 趙曦의 『海槎日記』날짜임. 사행록은 『海槎日記』(『국역 해행총재』Ⅶ)와, 김인겸의 國文歌辭 『日東壯遊歌』(한국고전문학대계 10, 교문사를 저본으로 하였음).

14) 1624년 姜弘重의 『東槎錄』, 10월 10일 / 1682년 譯官 洪禹載의 『東槎錄』, 8월 6일

## 2) 使行

趙曠은 朝廷에서 인정하는 ‘知日派’이었고, 누구보다 兩國의 懸案을 잘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海槎日記』에는 ‘知日派’의 면모를 보여주는, 양국 관계에 대한 의견이 많다.

그래서 趙曠은 대마도에서, “토지는 척박하고 곡물이 매우 적어서, 만일 조선에서 주는 公米와 公木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며, “접대하고 수송하는 예절이 전보다 못한 것을 보니, 옛날의 은혜를 잊어버렸거나, 빈곤이 심하여 情態가 더욱 교묘하여 진 듯하다”며 대마도의 어려움과 그들의 表裏不同을 걱정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東萊府使와 慶尙道 觀察使를 지낼 때 매년 대마도에 준 것을 생각하며, 公作米가 16,000석, 兼帶米가 2천여 석, 料米가 2천여 석, 다른 명목으로 준 米豆가 1천여 석에 公木이 720여 同이었다고 하였다. 이 밖에도 무시로 찾아오는 使者에게 준 것까지 계산하면 30만 냥이 훨씬 넘어, 항간에서는 “嶺南 半道の 재산이 모두 倭에게 들어갔다”고 할 만큼, 적지 않은 재물이 대마도로 들어갔다고 하였다. 그런데 대마도가 가져오는 것은 黑角, 銅鐵, 胡椒 같은 잡물로, 값으로 치면 3만여 금으로 조선이 주는 것의 1/10에도 미치지 않았다.(10월 28일)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잊어버리기 어려운 원수를 먹이는 것은”, “통분함을 참고 원통함을 삼키는 마음으로 어찌할 수 없이 오랑캐와 和親하는 最下의 方策을 쓴 것”이지, 결코 즐겨하는 交隣이 아니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朝廷의 의견이었다.

조선이 어려운 財政에도 불구하고 대마도를 먹여 살린다면 “대마도는 조선의 변방 영토”로 “대마도 사람의 뼈는 일본 사람이지만 살은 조선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은덕에 감사하지 않고 事事物件 江戶를 핑계하여 공갈치고, 사이에 끼어 이득을 노리는 간사한 버릇이 날마다 더욱 심하여, 참으로 통탄할 노릇이었다.”(10월 28일) 그렇지만 조선은 ‘먼 나라 사람을 회유 한다’는 『中庸』의 「九經」과, ‘후하게 주고 박하게 받는다(厚往薄來)’는 『周易』대로, ‘上國의 도리로 작은 利害를 따지지 않았다. 그런데 만약 조선이 대마도를 薄待하면, 江戶에 참소하여 兩國이 不和하도록 만들 위험이 있었기에, 당시 조선은 대마도에 대한 不信의 골이 깊었다.

癸未年(1703년)에는 대마도로 가던 譯官 韓天錫 일행이 악포(鰐浦)에서 빠져 죽은 일이 있었는데, 그 위험한 악포 앞을 지나오라는 것이 불쾌하였다. 대마도 府中으로 가는 뱃길은 佐須浦에 들리지 않고 부산에서 바로 “西泊浦”[比田勝港]로 간다면, 험한 악포와 豊崎를 거치지 않을 수도 있을 터인데, “저들이 반드시 佐須浦로 인도한 것은 길의 里數가 조금 멀 뿐만이 아니라, 그 뜻이 반드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豊崎를 눈으로 보게 하여 關防이 험함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니,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다”며 航路에도 대마도의 음모가 있다고 不信하였다.(10월 19일)

趙曠은 대마도를 ‘오랑캐’라고 無視하였으므로, ‘上國’의 모범을 보이려고 애썼다. 우선 以酌菴 장로가 보낸 單子에 年月과 別號만 쓴 것을 無禮하다고 물리쳤더니, 다시 고쳐서 보내왔다. 또 島主가 사신을 보러 오는 것이 지체된 이유를 따졌더니, “行禮할 때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習儀를 행하다가 늦었다”하므로, 예의가 천하에 중히 여겨짐과 忠信이 ‘오랑캐 지방에도 행해질 수 있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11월 2일) 그런데 宴饗 때 풍경은, 빌어먹는 왜인이 아주 어지럽고 시끄럽게 떠들어서 ‘乞鬼’ 같았으며, 淸에 갔던 燕行使의 이야기를 들으니 무뢰배가 행패를 부려도 禮官이 금지하지 못하였다니, “胡나 倭”는 기강이 점차 문란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서 “지금 천지가 비린내 나서 순조(鶉鳥)가 오랫동안 취했으니, 만일 禮樂 文物을 찾는다면 우리나라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겠는가?”하며 조선이 ‘中華’라고 自尊하였다.(11월 3일)

趙曠은 처음부터 대마도를 不信하였으나, ‘오랑캐’도 인간이니 蠻性과 교활함을 탓하지 말고, 옛

날 張詠이 蜀을 다스릴 적에, 孔孟의 학문을 아는 사람으로 대하였더니, 亂民이 모두 良民으로 변화되었다는 故事를 생각하여, 그들을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趙曦의 外夷觀의 要諦이었으며 사행 출발 때 “員役에게 효유한 글”(曉諭員役文)도 이러한 外夷觀을 표현한 것이었다.

사행록은 대개 일본을 夷狄視하며 風俗을 폄하함으로써, 문화적인 우월감을 만끽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이었다. 이러한 우월감은 倭亂에 대한 복수였으며 또한 적대 감정이었다. 그러나 趙曦은 소극적인 자세를 넘어서, 그들을 包容하여 복종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니, 통신사의 認識도 많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 3) “扶桑” 바로 보기

일본에 가는 사신들은, 일본은 해가 뜨며 神木이 있는 “扶桑”이라는 傳說을 들었으므로, 詩에서 日本을 “扶桑”이라 부르기를 좋아하였다. 조선에서 ‘日本’이라는 명칭은 ‘倭’라는 글자와 同一視 되어, ‘倭寇, 倭亂’ 같이 부정적인 이미지와 오버랩 되어 ‘오랑캐 나 ‘蠻地’의 이미지가 강하였으니 詩에서만은 神仙境과 桃源境을 연상 시키는 “扶桑”이라 부르고 싶었을 것이다.

高麗 末(1337년)의 鄭夢周도 「鄭圃隱奉使時作」에서 “땅이 扶桑에 가까우니 새벽 해가 붉노메라, 神仙은 바다 위에 산다고 말하지만, 民社가 동쪽에 있는 줄을 뉘 알랴 地近扶桑曉日紅, 但道神仙居海上, 誰知民社在天東”며, 徐福이 秦始皇의 不死藥을 구하려 “扶桑”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倭亂 이후의 通信使들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으로 ‘倭’라는 단어를 즐겨 쓰며, 일본의 風俗이나 事物을 폄하하는 것으로 복수하였지만, 일본의 아름다운 자연이나 풍성한 物產을 보고 조심스럽게 놀라움을 보였다. 통신사들은 일본의 아름다운 景觀을 神仙이 산다는 “扶桑”이라 읊으며 은근히 仙界로 美化하기도 하였다.

趙曦도 일본의 景觀 중에 볼 만한 경치는 “(赤間關을) 좋은 강산이라고 할 만하다”거나, (福禪寺는) “경치가 몹시 기묘하여 굽이굽이가 명승지라고 할 만하다”며 칭찬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名勝地는 靑浦, 淸見寺, 望湖樓”라고 하였으나, “(4월 1일, 望湖樓에 올라) 이러한 名勝地가 源平의 땅에 붙었으니, 하늘의 뜻을 알 수 없어 또 길이 탄식 하네”라고 부러워하면서도 “源平의 땅” 즉 武士들이 霸權을 다투는 ‘오랑캐의 땅’이라, 景觀을 즐기며 悠悠自適할 줄 모르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탄식하였다.

趙曦은 일본의 景觀을 조선에 비교하며,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였다. 12월 29일 赤間關에서 “경치가 자못 볼 만한 것이 많았으니, 勝景으로 일본에 소문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 豆湖亭보다 못하다”며 우리 땅에 대한 優越意識과 더불어, 자연 景觀을 吟味하는 방법이 다름을 보여주었다. 일본을 “扶桑”이나 “仙界”로 보았던 시각은 이제 서서히 바뀌고 있었으며, 우리 것과 비교하는 自尊意識이 싹트게 되었다. 趙曦은 “三島를 지나면서”라는 詩에서, 일본을 보기 전에 가졌던 “扶桑” 이미지가 “부질없는 예찬”이었다고 읊었다.

일본의 상징인 富士山에는 이미 鶴이 없으며, ‘箱根湖’에는 龍이 떠나버렸으니, 그곳이 仙界라는 말은 허황된 소문이라고 읊었다. 또 富士山을 지나며, (2월 9일) “서불(徐市)이 일본에 꼭 왔다는 것도 이미 믿을 수가 없는데, 仙藥을 이 섬나라 세 산에서 캐다는 것은 또 가죽 없는 터럭 격”이라 否定하였다. 그러면서 “壽를 연장하는 靈藥을 구하는 데는 반드시 人蔘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人蔘이 생산되는 고장이므로, 濟州의 漢拏山과 高城의 金剛山과 南原의 智異山을 세상에서 三神山이라고 칭하는데, 이 말 역시 꼭 믿을 수는 없다”고 하였다. 또 “만일 참으

로 서불이 온 일이 있다면 일본의 허탄한 습성으로 어찌 과장해서 부연하지 않겠는가? 여기에서 더욱 齊東野人の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趙曦은 ‘서불[徐市 徐福 傳說]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서불 傳說’의 세 가지 虛點을 지적하며, ‘서불’이 일본에 도착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고 斷言하며,(2월 9일) ‘徐福 傳說’에서 말하는 “扶桑”은 일본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 三島에서 富士山을 바라보니 기대보다 못하였으므로, 자신이 직접 본 金剛山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箱根를 내려가며, “이곳에서 비로소 좌우의 산골 시냇물이 돌에 부딪치고 수풀을 뚫으며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우리나라에 비교해 말하면 죽히 일컬을 만한 것은 없었다.”며,(2월13일) 山溪와 泉石이 어우러진 조선의 景觀이 더 좋다고 하였다. 이렇게 일본의 虛像을 분석하고, 조선의 가치를 再考하려는 것을 우월감이라고 할 수는 없겠다. 趙曦은 일본의 좋은 점은 인정하였지만, 誇張되었거나 왜곡된 것은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趙曦도 先行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詩文을 통하여 일본을 教化시켜, 文章으로 道를 배우게 하면, “비록 섬 오랑캐이긴 하지만 중국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니, 오랑캐라 하여 끝끝내 버릴 수 있겠는가”며,(6월 18일) 文章으로 教化시키려는 생각을 가졌으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으며, 文章으로 일본을 教化시키려는 의도는 일본의 현실을 잘 모르는데서 오는 착각이라며, 일본 독자의 문화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 趙曦은 일본의 장점을 기록하려고 하였다. 壹岐島의 使館을 보고, “그 집 제도가 공사를 막론하고 廣狹長短이 으레 척수가 있어 감히 어김이 없기 때문에 동쪽 집 창문을 빌어다 서쪽 집에 사용하여도 符節처럼 꼭 들어맞는다고 하니, 그 또한 매우 공교하나, 반드시 다 그렇지는 못할 것이다”며(11월 22일), 일본의 기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趙曦의 부친은 1731년(英祖7) 謝恩副使로 淸에 다녀왔기에, 그는 父親을 통하여 淸의 발달한 文物과 기술이 民生에 도움이 됨을 알았을 것이다. 당시는 아직 淸의 문물을 배우자는 “北學派”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淸의 文物에는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었다. 趙曦 前에 正使로 임명되었다가 귀양을 간 徐命膺(1716-1787)도 使臣으로 北京에 다녀온 적이 있었으므로, 『北學議』序文에서 朴齊家の 의견에 공감을 표하였다. 이러한 것을 보면, 당시 넓은 세상을 본 士大夫들은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趙曦도 民生을 구하는 것이라면 利用厚生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고구마 種子를 구하여 부산으로 보낸 것도 이러한 생각에서 연유된 것이리라. 그러나 先行 통신사들은 일본의 문물을 보고 놀랐지만, 오랑캐의 문물을 도입하자고 감히 주장하였거나 실행에 옮긴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趙曦은 京都의 淀浦에서는 水車를 배워 가면 灌溉에 좋겠다고 생각하여, 그 제도와 모양을 살펴오게 하였다.(1월 27일) 佐渡川에서는 舟橋를 만든 방법이 정밀한 것에 놀랐고, 竹夫人처럼 만든 대바구니에 돌을 담아 堤防의 유실을 막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 西南海 제언(堤堰)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하였다.(2월 3일) 또 歸途에는 길옆에서 방아 찧는 소리를 듣고,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고 만듭새를 전하도록 하였다.(4월 2일) 이렇게 사행에서 새로운 것을 보거나 배울 만한 기술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였다.

先行 통신사들은 문화적 우월감에 빠져 일본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으나, 趙曦은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의 좋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본의 진보된 문물을 배우고자 하였다. 1764년 使行보다 나중에 늦게 燕行하였던 젊은 士大夫들이, 조선의 현실을 비판하며 淸의 기술과 문물을 배워 利用厚生하자고 ‘北學’을 외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발상이었다. 그러나 利用厚生을 외친 實學思想이 대부분 燕行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며, 1764년 使行에서 볼 수 있

듯이, ‘北學派’ 이전 사행에 이미 그러한 변화의 조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4. 李德懋의 日本 研究

##### 1) 일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일본 연구

胡亂은 조선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明나라 一邊倒 외교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밖에 없었고,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국가를 지키려면, 새롭게 일어나는 주변국들을 알아야만 하였다. 이러한 시대 변화와 그간 通信使行에서 얻은 일본 정보가 축적되어, 일본 연구가 싹트기 시작되었다. 당시의 일본 연구로는 洪汝河(1621-1678)와 許穆(1595-1682)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이들의 연구는 사행록과 사신의 견문을 많이 참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洪汝河는 일본의 정치와 군사에 대한 관심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결국 일본 사회와 풍속까지 관심의 폭을 넓히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도 결국 통신사의 시각을 빌릴 수밖에 없었으므로, 당시의 ‘小中華意識’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는 일본의 강한 군사력을 인정하며, 재침을 막으려면 일본에 宥和的인 외교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도, 통신사의 시각을 빌린 것이다.

許穆은 1636년 사행의 副使 金世濂과 1643년 사행의 副使 趙綱의 사행록을 읽고 일본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으나, 일본을 야만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러나 許穆은, 일본이 儒學을 배우는 것을 알고, 일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1643년 사행 副使 趙綱에게 일본 서적 구매를 부탁한 것을 보면, 일본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는 시대에 새로운 사상적 흐름으로 實學이 등장하여, 새로운 학문의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조선은 이제 燕行使를 통하여 넓은 세계를 알았고, 通信使는 변성하는 일본의 모습을 전해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자극받아, 일본 연구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사람은 18세기 전반 英祖代에 활약한 李瀾(1681-1763)이었다. 李瀾은 불우한 처지로 농촌에 칩거하여, 방대하고 다양한 독서를 통하여 실증적인 역사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며,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時勢의 흐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고로, 세상의 변화에 맞추어 학문도 변해야 하고, 이웃나라를 보는 시각도 달라져야함을 알았던 것이다.<sup>16)</sup> 李瀾의 일본 연구는 『星湖僿說』에서 읽을 수 있는데, 일본의 歷史·地理·政治·文化·風俗·軍事·技術·倭亂에 대한 반성과 비판, 통신사 외교 반성과 비판 및 대책을 제시하며, 100여 항목에 걸쳐 기록하였다.<sup>17)</sup> 이러한 일본 연구는 일관된 체계가 없어서 중복된 것도 있으나, 당시로서는 가장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담은 일본 연구이었다. 당시 일본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일본 연구가 겨우 시작이었으므로, 『星湖僿說』은 일본의 단편적인 정보 모음에 그칠 수밖에 없었으나, 李瀾의 일본 연구는 일본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겠다.

李瀾도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얻는데, 通信使가 중요한 情報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그의 아들 孟休(1713-1751)가 1744년(英祖 20)에 禮曹正郎으로 외교의 諸事例를 수집한 『春官志』와 『接倭歷年攷』를 편찬하였으므로, 대일본 외교에 관한 기록을 쉽게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친구 洪重孝가 東萊府使였으므로, 일본사정과 對日本 外交의 문제점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15) 河宇鳳(1989).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 일지사. P.34-43

16) 鄭玉子(2002). 『우리 선비』. 현암사. p.270-281

17) 丁海廉 편역(1998). 『星湖僿說 精選』. 현대실학사

## 2) 이덕무의 일본 연구

李德懋(1741-1793. 英祖18-正祖17)는 넓은 학식과 독특한 사상으로 다방면에 걸쳐 많은 저술을 남겼으며, 그의 『靑莊館全書』에는 일본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부터, 『蜻蛉國志』와 같은 종합적인 일본 研究書가 들어있다.<sup>18)</sup> 특히 『蜻蛉國志』는 매우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日本國志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일본 연구서이었다.

조선 후기의 實學者들이 일본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통신사 사행록과 사신들과 交遊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sup>19)</sup> 1778년 朴齊家와 함께 燕行使 수행원으로 淸을 견학하고 『入燕記』라는 燕行錄를 편찬한 李德懋는, 1764년 사행 書記 元重舉(玄川)와 가깝게 지냈으며, 李德懋의 막내딸이 元重舉의 子婦다. 1764년 사행의 書記 成大中은 李德懋의 遺稿인 『雅亭遺文』의 跋文을 써주었고, 李德懋는 1764년에 成大中이 가져 온 詩畫를 일품이라고 평하며, 일본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였다.<sup>20)</sup> 朴齊家도 通信使와 交遊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北學議』에서, 일본도 배울 것이 있는 나라라며 여러 항목에서 우리의 제도를 비판하면서 ‘일본 바로 보기’를 주장하였다.<sup>21)</sup>

### 가) 『蜻蛉國志』

「蜻蛉國」이라함은, 『日本書紀』에서 神武天皇이 일본열도의 모양을 보고 잠자리와 같다고 한 것에서 유래된 일본의 옛 이름이었다. 이 책은 2권으로 총 14편으로 되어 있다. 1권의 내용은, 「世系圖」·「世系」·「姓氏」·「職官」·「人物」·「藝文」·「神佛」을 기록하였고,<sup>22)</sup> 2권은 「輿地圖」·「輿地」·「風俗」·「器服」·「物產」·「兵戰」·「異國」에 대하여 기록하였다.<sup>23)</sup>

### 나) 『靑莊館全書』의 일본 관계 기록

『蜻蛉國志』이외에 『盎葉記』, 『淸脾錄』, 『編書雜稿』, 『紀年兒覽』, 『雅亭遺稿』에 일본에 관한 단편적인 기록이 보인다. 이것을 내용별로 분류하면, 對外關係·歷史地理·文獻과 書畫·儒學과 詩文·漢字와 造語·風俗 등이다.

## 3) 이덕무의 일본 연구의 특성

### 가) 국가와 민족

이덕무가 활동하였던 시기는, 왜란의 후유증도 많이 치유되고, 일본에 대한 적개심도 누그러진 18세기 후반이었다. 이제 일본은 불안한 이웃나라에서, 불편한 이웃나라로 바뀌어져 갔다. 그러

18) 『國譯 靑莊館全書』11. 고전국역총서 194.

19) 成大中이 쓴 趙曦의 『海槎日記』序文이 1800년(英祖 24) 5월인 것을 보면, 『海槎日記』는 이때 세상에 나왔을 것이다. 이 때가 “北學派”의 활동 시기와 비슷하였고, 당시 사회의 진보적인 분위기가 ‘利用厚生’이었으므로, 통신사도 당시 분위기에 자극 받았을 것이다.

20) 아! 조선의 풍속은 좁고 고루하여 기위하는 것이 많다. 문명의 교화는 오래 되었으나 풍류와 文雅는 도리어 일본사람들의 험루함이 없는 곳보다 못하다. 그런데도 스스로 교만하고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니 나는 이를 매우 슬퍼한다. (『國譯 靑莊館全書』. p.28)

21) 게이년(1763)에 통신사가 일본에 들어갔을 때, 書記가 우연히 중국 먹(墨)을 요구하였더니 잠시 후에 먹을 한 짐 갖고 왔다. 또 하루 종일 가는 길에 붉은 용단을 깔았는데 그 다음날도 계속 이와 같이 하였다. 제 나라 자랑을 이같이 한 것이다. [李翼成 譯(1971). 『北學議』. 『進北學議』 <通江南浙江商舶議>. 乙酉文庫 51]

22) 『國譯 靑莊館全書』.(『蜻蛉國志』) p.58-137

23) 『國譯 靑莊館全書』.(『蜻蛉國志』) p.138-186

로 일본을 객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었으며, 통신사를 통하여 들어오는 일본의 實狀이 지식인들에게 일본을 재인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때, 이덕무는 일본에 호기심 이상의 관심으로, 일본을 긍정적으로 보며, 交隣 상대로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덕무는 일본의 天皇과 年號 등에 거부감을 보이며, 이를 ‘僞皇 倭皇 僞年號’로 깎아내렸다. 이는 조선에서도 쓰지 않는 ‘天皇’이라는 용어와 독자적인 年號를 일본이 쓰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었다. 이것은 당시 지식인들의 보편적인 사고인 華夷思想으로 볼 때, 일본의 自主意識이 넓은 세계를 모르는 섬나라의 自尊으로 밖에 안 보였고, 또 그것을 인정한다면 조선과 抗禮라는 위상을 무너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칭하는 ‘天皇’이라는 자리는 옛날과 달라서, “(倭皇은)神佛로 자처하며 국민은 다 그를 神主로 대우한다”는 실권을 갖지 않은 虛像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으니, 칭호에 거부반응이 없을 수는 없었다. 이러한 반응 이외에는 일본의 국가 조직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무조건 평가절하 하지는 않았다. 그간에 듣고 보아온 일본 문물이, 무조건 무시할 정도이거나 개탄할 것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중화문명의 교화를 받아 조선과 비교할 수 있을 만큼 국가로서의 수준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덕무는 일본의 국가 조직을 기술하면서, 전통적인 관직을 언급하는 것에 형식화되어, 幕府체제·藩의 조직·幕府의 大名 통제 등, 막부의 봉건적인 질서체계까지는 알 수가 없었다. 이것은 문헌과 傳聞에 따른 연구의 한계였다.

당시의 일본 연구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것이 對馬島였다. 『海東諸國記』에서 대마도의 실상은 중요한 과제였으며, 왜란 이후 대마도의 位相은 달라졌으나, 대마도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수 없었다. 이덕무도, 그들을 가난하고 간교한 무리라고 경계하며, ‘島守 平義智가 秀吉의 길잡이를 하였다는 사실과, “대마도 사람은 미개하여 文飾이 없으나, 몸이 튼튼하고 내국인보다 특이하게 크다”는 정도로, 대마도 실상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역시 이덕무도 대마도를 일본과 분리시켜, ‘섬 오랑캐’로 보는 조선 중심의 華夷思想을 가지고 있었다.

왜란 후 일본은 침략자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여, 일본인에 대한 평가도, ‘犬羊. 介鱗’ 등으로 야만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결국은 피해망상으로 발전하여, 일본은 교활하고 사나우며 마음 놓을 수 없는 야만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덕무는, 국가와 국민을 동일시하지 않고, 일본인의 기질을 정서적이라 평가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일본인의 장점을 먼저 말하고 단점을 언급하는 신중함을 보이며, 선입관을 억제하며 객관적인 시각으로, 어느 민족이나 가질 수 있는 장단점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하였다. 이덕무가 燕行에서 깊이 깨달은 것은, 오랑캐라는 만주족이 중화문명의 교화로 中原의 주인이 되어 중화문명을 계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華夷의 구별은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중화문명의 흡수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덕무의 華夷思想은 燕行을 통하여 바뀌었으며 ‘華夷一也’의 시각으로, 중화문명의 흡수 정도로 국가와 국민의 수준을 평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일본의 정서적인 민족성을 악용하여 포악하게 만든 것은 秀吉이었으며, 이제는 일본 민족이 조용하게 분수를 지키며 산다고, 경계의 시각을 늦추고 안심하는 기색을 보였다.

## 나) 사회와 풍속

이덕무의 일본 사회에 대한 연구는 地理·經濟·社會制度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는 각 지역이 어떠한 지리적인 조건에서, 어떠한 산물을 생산하며, 어떠한 제도로 생활하고 있는가에 주목하였다. 그는 우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 숫자를 바탕으로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각 지역의 지리적인 분류는, 통상적으로 부르는 66국에 對馬島와 壹岐島를 넣어 68국으로 하였다. 일본에서 대마도와 일기도의 비중은 적었으나, 申叔舟가 일본을 연구한 방법을 따라, 두 섬에 다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이다.

각 지역의 경제력을 토지의 비옥함과 산물로 보고, 大中小에 다시 上中下로 세분하여, 大和나 伊勢같은 지역은 ‘大上上國’으로, 대마도나 일기도는 ‘小下國’으로 구별하였다. 또 특산물·화폐제도·조세제도·도로·교량·도량형·발달한 서신제도·造船기술과 선박통제·茶店·저자거리·여인숙·창녀 등, 우리 제도와 다른 점을 되도록 자세하게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덕무는 일본사회를 土農工商의 四民으로 구분되는 武士중심의 법치국가로 보았다. 四民은 계급이동이 없는 세습제에, 실제적으로는 ‘土商工農’의 서열이며, 文士의 지위는 하류에 속한다고 하였다. 그 나름대로 예의와 질서가 있고, 도둑을 엄히 다스리므로 治安은 안정되었으나, “關白은 危害가 두려워서 土室을 여러 곳 만들어 늘 거처를 바꾸어 잔다”는 년센스 같은 이야기도 기록하였다.

풍속에 대하여, 관혼상제·인사예절·습성·服色·음식·목욕·曆書·절후·명절·주거·식기·車馬·신발·冠·성모 등으로 구분하고, 비교적 많은 항목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많은 판단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 그는 일본의 匠人이 천하제일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 하고, 아울러 경제적인 대우도 좋다는 것을 부러운 듯이 소개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나라의 풍속을 소개하는 그의 시각은, 어디까지나 우리와 다른 이웃 나라의 풍속을 있는 대로 소개할 뿐이지, 자신의 평가는 되도록 자제하였다.

사행록에는 우리의 거부반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奇異한 습관이나 性風俗·가족제도 등을 소개하며, 일본을 야만시하는 것이 하나의 패턴으로 전해왔다. 왜곡된 선입관과 중화문명의 전통만으로 異邦의 문화를 평가하려는 華夷思想과, 공식적인 歸國報告書로 定型화된 사행록의 전통은 어느 누구에 의해 쉽게 깨어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덕무의 연구는 책임이나 남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자의적인 편집이었으므로, 알려진 사실을 전하는데 충실할 수 있었다.

#### 다) 宗教와 文化

이덕무는, 일본은 儒敎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 안 사람들이 제 나라를 神國이라 자칭하며, 그들의 숭상하는 것은 첫째가 神이고, 둘째가 부처이고, 셋째가 文章인”, 神道와 佛敎가 지배하는 사회로 보았다. 그러므로 神佛에 대하여 많은 항목을 두고 소개하였다. 먼저, “倭皇의 출생은 이미 神이 내림에 말미암은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神佛로 자처하며, 국민은 그를 神主로 대우하고, 倭皇이 수천 년의 오랜 동안 僞號를 보전한 까닭도 神道를 끼고 있기 때문에 불과하다”는, 神道가 국가 종교로 영향력을 가져, 국민의 생활에 뿌리내린 절대적인 신앙이라 소개하였다. 이러한 소개를 보충하는 자료로, 전국에 널려있는 神社의 숫자와 유명한 神社까지 설명하였으나, 천황의 정치적인 의미에 대하여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佛敎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불교의 전래와 高僧들을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神道와 불교가 구별 없이 어울려, “天皇이나 백성들이 모두 이에 이름을 붙이고 부처의 계율에 의지한다”고 하였으나 神道와 불교의 혼합에 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통신사들도, 일본이 神道와 불교를 구별하지 않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고, 그것을 이상하게는 보았으나 깊이 있게 언급하지 않았다. 이덕무도, 일본 불교가 계율을 벗어나, “귀족으로서 중이 된 자는 또 다들 창녀 집이나 술집에 빠져 놀며, 아내와 자녀가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면을 미신을 보듯, “淫祠·淫神”이라며 못마땅하게

소개하였다. 유학자가 볼 때 조선의 불교도 못 마땅하였는데, 더욱이 계율도 지키지 않는 일본의 세속적인 불교에는 눈을 돌리고 싶었을 것이다.

일본 문화에 대한 이덕무의 관심은, 오로지 詩文과 儒學에 집중되었다. 그가 관심을 가지고 기술한 것은, 일본에 詩文과 儒學이 전래된 역사와 유명한 사람들의 행적과 서적이었다. 그는 관심이 많았던 詩文에 대하여「藝文」편을 만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저 일본 사람은 총명하고 숙성하므로, 4-5세에 능히 붓을 잡고, 10여세에는 모두 능히 시를 지으며, 시를 잘 짓고 글씨를 잘 쓰는 여자가 매우 많다”고 칭찬하였다. 그는 이것이 일본 사람들의 타고난 글재주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근자에 江南의 서적이 長岐에 모여들어, 집집이 글을 읽고 사람마다 문장을 쓰니, 오랑캐의 풍속이 점점 변하여 간다.”며, 문화수입에 의한 개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기까지, 그가 일본의 詩文을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비교적 많았다. 그러므로 그는 『靑莊館全書』에서, 1764년 사행시에 받아 온 贈別詩를 소개하고,<sup>24)</sup> 일본 古詩와 유래를 말하며,<sup>25)</sup> 1764년 사행 때 筆名을 날린 李彦瑱의 詩文과 활동을 기록하였다.<sup>26)</sup> 1711년의 사행 때에 가져온 新井白石(1657-1725)의 『白石詩草』나, 그가 『蜻蛉國志』에서 책이름을 언급한 『懷風藻』를 비롯한 몇 권의 시집도, 이미 조선에서 볼 수 있었던 시집이었다. 이덕무는 일찍이(31세) 平壤을 유람할 때, 『蘭亭集』이라는 日本 詩集을 얻어 보고, “詞藻가 奇偉雄健하여 雲樓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평하였다. 그는 成大中이 1764년의 사행에서 가져 온 詩畫를 보고, 그림과 글씨가 일품이라고 평하였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낮은 언덕에 松柏이 없다’며, 일본의 詩文을 낮게 평가하였고 『白石詩草』마저도 “말이 저속하고 연약한 것이 많다”고 평가 하였다.<sup>27)</sup> 일본을 깔보던 조선의 분위기 속에서, 이덕무는 交友의 견문과 일본의 詩文을 통하여 일본을 새롭게 인식하였으며, 일본의 詩文을 보면 “마치 마음에 맞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술회하였다.<sup>28)</sup> 그는 스스로 벗어나며 풍류로 삼는 詩文을 통하여 일본을 보니, 文風이 놀랄 수준이었고, 일본 文士들이 옛 친구처럼 반갑게 느껴졌으므로, 일본을 어찌 오랑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당시 조선의 고루하고 편협한 일본에 대한 편견을 비판하였다.

이덕무와 같은 시대의 통신사 趙曦은 물론이고, 모든 통신사들이 문화적 우월감을 가지고 일본의 詩文을 좋지 않게 평가하였지만, 이덕무의 평가는 달랐다. 이것은 사행록이 통신사의 공식적인 報告書라는 성격 때문에, 통신사들이 定型化된 先例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通信使가 우월감과 선입견에서 벗어나, 北學派가 淸을 둘러보고 北學을 주장하였듯이, 열린 시각으로 私見을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덕무의 일본 儒學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인물 중심으로 되었다. 그는 「人物」이란 항목에서 먼저 역사상의 인물들을 열거하고, 그들의 생애와 업적·門弟에 이르기까지 요약하였다. 그는 이 밖에 『靑莊館全書』에서, 일본 儒學에 대하여 몇 개의 항목을 기록하였다. 이의 내용은, 孟子의 性善說에 대한 伊藤仁齋의 해석을 논평하고, 일본의 聖堂과 역사 유학자와 문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록을 살펴볼 때, 仁齋나 俎徠에 대하여는 그들의 저서를 직접 읽어보고 썼다는 것을

24) 『國譯 靑莊館全書』7. 「蜻蛉國詩選」. p.230-233

25) 위의 책. 「倭詩의 始初」. p.93-97

26) 위의 책. 「이우상」. p.147-149

27) 1719년 신유한의 『海游錄』(『국역 해행총재』I). p.367

28) 『國譯 靑莊館全書』7. p.28 (“일본에는 총명하고 영수한 사람들이 많아, 진정을 토로하고 심금을 명백히 하며, 문필도 모두 귀히 여길만하고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랑캐라고 여겨 무시하고 언뜻 보고 나무라고 헐뜯기를 좋아한다.”한 말이 참으로 옳은 말이다.)

알 수 있다. 이덕무는 朱子學的인 시각을 가졌으나, 反朱子學的인 학설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비판하였으며, 그들의 학설을 異端視하는 편협한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仁齋의 학설을 읽어보고 仁齋를 ‘일본 道學의 높은 선비’라고 인정하였고, 組徠를 ‘해외의 傑士’라고 칭찬하였다.

이덕무는 일본에 儒學이 들어가서, “200년 이래로 오랑캐의 풍속이 변하여 聖學을 하니 진실로 가상하다”며, 일본이 유학으로 개화되는 것은 좋게 보았으나, “일본이 무력을 양성하지 않고, 文을 숭상해서 기풍이 위축되는 것은 복이 되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것은 文弱과 空理空論에 빠진 조선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보며, 아직 儒學에 병들지 않은 일본에게 들려주고 싶은 충고이었던 것이다.

## 라) 軍事 및 對外關係

兩亂의 시련을 겪은 당시는 위기의식이 남아있었지만, 조선은 被侵을 통하여 有備無患과 知彼知己라는 큰 교훈을 얻었다. 그래서 通信使는 우선 일본의 변화를 살피고, 조선에 대한 再侵 가능성을 살피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었다.

이덕무도 근본적으로는 일본에 대하여 경계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았다. 그래서 「兵戰」이라는 항목을 만들어, 일본의 兵法·軍兵·賞罰·戰裝과 신라시대부터 왜구에 이르기까지 조선과의 전쟁사를 소개하였고, 倭亂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그때의 상황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戰裝」에서는 百科事典식으로 정보를 늘어놓다보니, 향간의 속설과 같은 허황된 이야기도 있어서, 일본의 군사 현황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하였다.

이덕무는 일본인의 습성이, “굳세고 사나우며 칼과 창을 정교하게 다루고 배를 익숙하게 다룬다”고 하였다. 또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의 첫째가 武이고, 둘째가 法이고, 셋째가 슬기와 속임이라고 보았다. 당시의 한정된 정보로 일본의 무력이 강함을 충분히 소개할 수는 없었으나, 일본이라는 존재가 이웃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일본이 전통적으로 武를 숭상하고, 조선과 충돌이 잦았으므로 잠재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이덕무의 소개는, 『看羊錄』처럼 체험에서 우러나온 간절함은 없었으나, 일본에 대한 無知와 無關心을 비판하고, 有備無患의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었다.

사행록과 이덕무의 연구를 비교해 볼 때, 이덕무 만큼 일본의 對外關係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기록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평소에 이웃나라의 정세를 잘 연구하여서, 倭亂과 같은 환란이 없도록 하지는, 知彼知己와 有備無患의 정신을 잘 반영한 것이리라. 이덕무는 『蟲葉記』에서, 일본의 對中關係史·발해와의 通交史·占城國과의 무역서신·對明關係·唐宋元代的 對日關係史·조선초기의 對日關係史를 약술하며, 일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외 교섭을 하여 왔는가에 주목하였다. 이덕무는 『蜻蛉國志』의 「異國」편에서도, 중국을 비롯한 조선·南蠻 등 일본과 교섭관계를 가진 나라들에 대하여, 거리·위치·교역관계·풍속·토산물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하였다. 여기서 그는 일본과 관계가 깊은 南蠻·沖繩·아이누族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이덕무는 특히 ‘아란타’(和蘭)의 왕성한 해외무역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화란인들은 “性情이 정교한데 천문·지리·산수와 외치의약이 가장 좋다.”고 호감을 가지고 소개하였다. 그는 일본과 서양의 무역에 주목하며, 시계·총포·담배·고추 등이 서양으로부터 일본에 전파되어, “일본이 나라가 가멸하고 군사가 강해져 바다 가운데에서 세력을 떨치는 까닭은 능히 외국과 교통하기 때문이다”며, 조선의 폐쇄적인 對外關係를 비판하며, 北學派의 지론인 해외로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덕무는 對日關係나 해외 무역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았으나, 일본의 對外關係를 말하

며 조선의 현실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볼 수 있겠다.

## 5. 결 론

1748년 통신사는 幕府 將軍 家重의 襲職祝賀라는 使命으로 파견되었다. 양국간에 특별한 懸案도 없었으며, 通信使 외교는 명실 공히 ‘信을 通한다’는 뜻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동아시아 국제 사회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국관계를 반영하듯, 1748년 曹命采의 『奉使日本時間見錄』에 보이는 뚜렷한 특징은, 倭亂 후에 보였던 일본에 대한 적개심이나 경계심이 많이 누그러졌고, 또 일본에 대한 멸시적인 언사도 줄어들었다. 이것은 그간의 교류를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통신사의 일본 관찰이 선입관을 벗어나, 비교적 객관적으로 일본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대마도의 實狀 등을 정확히 파악하였고, 神社와 寺院에 대한 관찰은 약간 과장된 면도 있었으나, 비교적 본질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民衆의 비문화성과 잔인한 민족성에 대하여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으나, 교류한 학자와 문인들에 대한 학문적인 호의는 늘 가지고 있었다.

1764년의 사행도 특별한 현안은 없었다. 조선은 英祖의 지도력이 발휘되는 시기여서, 문화정책에 힘을 쏟고 있었으나, 한발과 기근으로 경제가 어려웠고,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약간의 內患이 있었다. 그러한 분위기에서도, 외교는 국가존립의 大綱이라, 통신사 외교는 전례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되었다. 1764년 사행의 正使 趙暉의 『海槎日記』는 사행의 순서를 따라 당시의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이 사행에서 趙暉은, 기근을 해결하려고 고구마 種子를 들여왔으며, 水車를 그려 왔고, 대마도와 일본 지도를 模寫하며, 일본의 實狀을 바르게 인식하려고 노력하였다. 또 사행 중에 몇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崔天宗被殺事件’은 우발적인 사건이었지만 복잡한 양국관계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러한 사건은 양국간에 깔려있던 불신과 멸시감이 작은 충돌로도 쉽게 폭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통신사는 일본의 학자들과 교류하였으나, 사행록의 行間에는 선명하게 대립과 경쟁의식이 번뜩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이덕무의 일본 연구는 참으로 중요하다. 첫째 그의 일본 연구는, 燕行에서 자극을 받아서, 北學과 같은 방법으로 일본을 우선 학문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시도하였다. 또 北學派들도 일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저술에 단편적이거나 일본을 긍정적으로 기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그의 일본연구는 名分이나 감정적인 차원을 벗어나,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일본의 실체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일본이 산물과 인구가 많고 기술이 발달하여, 국력이 왕성하다고 소개하였다. 또 일본은 역사적으로 조선과 분쟁이 잦았고, 오랜 전란을 통하여 전쟁에 능하므로, 조선에 장차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그의 생각은, 자신의 연구가 ‘知彼知己 百戰不殆’의 대책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셋째, 그는 倭亂의 악몽과 문화적인 우월감에서 벗어나, 일본사회의 특성과 독자적인 문화 풍토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종교 현실에 대해 유학자의 시각으로 좋지 않게 평가하였다. 특히 그는 일본의 유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부 학설을 비판하였으나, 그것을 전적으로 異端視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학설의 가치와 일부 학자들의 업적을 인정하며 좋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또 詩文에 있어서도, 일본의 수준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문화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를 비판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덕무의 詩文에 대한 평가가 통

신사들과 다른 것은, 그가 직접 일본의 文才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漢詩 唱和로 지어진 즉흥적인 詩文보다, 책을 보고 궁리하여 쓴 詩文을 보았으므로, 일본의 文才를 좋게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이덕무 같은 人才가 통신사의 일행으로 일본을 직접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것이 유감스럽다. 그와 같은 人才가 일본을 볼 기회가 있었다라면, 더욱 정확히 일본을 관찰하고, 장래의 양국관계를 잘 洞察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는 申叔舟가 『海東諸國記』에서 역설한 일본과의 교린외교를 염두에 두고, 有備無患하는 심정으로 일본연구서를 集大成하였으나, 그의 연구가 巷間의 인식이나 交隣외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으로 알려지지 못하였다는 것이 역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 【參考文獻】

- 김인겸. 『日東壯遊歌』. 한국고전문학대계 10. 교문사
-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海行摠載』
- 민족문화추진회. 『國譯 靑莊館全書』11.
- 이원식(1991) 『朝鮮通信使』. 민음사. p.86
- 鄭玉子(2002) 『우리 선비』. 현암사. p.270-281
- 丁海廉 편역(1998) 『星湖僿說 精選』. 현대실학사
- 河宇鳳(1989) 『朝鮮後期 實學者의 日本觀 研究』. 일지사. p.34-43
- 西村まり子(2000) 『日本見聞錄にみる朝鮮通信使』. 明石書店. p.212

## 要 旨

朝鮮が英祖代に日本に派遣した二回の通信使(1748年と1764年)の視角は、以前の通信使とは少しずつ変わっていた。彼らは日本に対して優越感をもっていたので、表では日本を無視しながら、本音は日本の文物を習おうとした。また、日本を見直そうとする考えも持っていた。このような変化は、清を見聞して得た刺激とも関係あって、国内では「實學」という學問が起こっていた。この時代の實學者李德懋は、燕行と通信使の見聞に刺激され、日本研究書をまとめた。彼の研究は通信使の視角を借りたが、通信使の定型化された使行録とは変わった、開けた目で日本を見て、兩國關係と未來を洞察していた。

K C I

キーワード：對馬島, 通信使, 交隣外交, 江戸, 使行録, 小中華意識, 日本觀察, 日本研究, 扶桑, 『星湖僿說』, 李德懋, 北學, 『蜻蛉國志』

투 고 : 2004. 8. 31  
1차 심사: 2004. 9. 11  
2차 심사: 2004. 10. 2

住 所 :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6-21  
電 話 : 043(229)8342 / 02(576)3549  
E-mail : joshua@cju.ac.kr